	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		
회 의 명	제43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원회		
일 시	2023. 9. 15.(금) 15:00	**장 소**	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
참석위원	김은상(의장), 서용원, 한상만, 김윤배, 이철우, 강두호, 허재강, 전미희, 윤영선 평의원 / 전재욱, 박근아 평의원 위임장 제출 (이상 총 11명) ※ 기획조정처 유필진 처장, 전략기획팀 박형준, 이새롬 직원 배석		
불참위원	조준범 평의원		

1. 개 회

❍ 김은상 의장이 총 12명의 평의원 중 9명이 참석하고 2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, 제43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다.
제43차 대학평의원회 안건이 심의사항 2건임을 확인하고, 전차 회의록을 묵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
❍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,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.

2. 제5기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호선

❍ 김은상 의장이 제5기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호선에 대한 심의사항을 상정하고,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
❍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관련 규정, 경과 및 관례 등에 대해 설명하다.

❍ 김은상 의장이 이철우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고, 참석 평의원의 만장 일치로 이철우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호선하다.

3.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❍ 김은상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사항을 상정하고,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
❍ 이새롬 직원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 회의자료 중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사항 반영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,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
❍ 윤영선 평의원이 미래정책대학원이 국정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지 질의하다.

❍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미래정책대학원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정책이 아닌 미래정책에 대해 교육/연구하는 부분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고 하다.

❍ 서용원 평의원이 미래정책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명이 기존 학문단위의 학위명과 동일하여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다.

❍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각 학문단위의 교원이 해당 대학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다.

❍ 윤영선 평의원이 게임디자인학과의 핵심 분야에 대해 질의하다.
❍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게임 인터페이스 설계, 프로그래밍에 대해, 게임 산업 전반을 다루며, 해당 학과를 모체로 BK21 사업을 출전한다고 하다.

❍ 전미희 평의원이 학부 없이 대학원만 존재하는지 질의하다.
❍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해당 학과는 대학원만 존재하며, 모든 학부와 대학원 학과가 서로 매칭되지는 않는다고 하다.
❍ 한상만 평의원이 신설학과 대부분은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, 여러 학문분야의 교원이 모여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고 하다.
❍ 전미희 평의원이 전통적인 학과와 동일한 학위명으로 인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다.
❍ 한상만 평의원이 학위명이 동일하더라도 학과명을 통해 차별화가 이루어지며, 무분별하게 학위명을 늘려나가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양하고 있다고 하다.

❍ 서용원 평의원이 미래정책대학원에 어느정도 식견과 연륜을 갖춘 학생이 입학하여 미래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일반원이 아닌 전문원에 설치하여야 하지 않는지 질의하다.
❍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미래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래정책연구원의 교원, 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하며, 미래정책대학원은 미래정책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신설하였다고 하다.
❍ 한상만 평의원이 미래정책대학원은 융합학문 성격으로, 성균융합원에 편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대학원처럼 기능한다고 하다.

❍ 이새롬 직원이 학부/대학원 집중과정 운영 개선 반영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다.
❍ 허재강 평의원이 단축과정을 통해 1년만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면 대학원생에게 매우 큰 이점이 되리라고 하다.
❍ 한상만 평의원이 신설학과가 아닌 기존학과에서도 1년 과정으로 졸업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다.
❍ 강두호 평의원이 1개 학과에서 등록금을 차등하지 못하기 때문에, 기존과정과 단축과정을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다.
❍ 유필진 기획조정처장이 아직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축과정으로 신설학과는 없으며, 선제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이라고 하다.

❍ 김은상 의장이 학석사통합과정과 대학원 단축과정의 연계에 대해 질의하다.
❍ 한상만 평의원이 학석사통합과정과 대학원 단축과정을 연계하여 4.5년 내로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석사학위 수여생 규모를 대폭 늘려 미래 경쟁력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다.

❍ 강두호 평의원이 학칙 제37조제1항 개정안의 ‘1년 과정 학과(전공)의’ 문구가 중복되어 재검토하여 주길 요청하다.

❍ 김윤배 평의원이 그간 단축과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왔으나 규제에 따라 운영하지 못하였으며, 향후 단축과정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하다.

❍ 김은상 의장이 현행 규정에 따라 학부 1년 단축, 대학원 1년 단축을 통해 4년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.

❍ 강두호 평의원이 규정 및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하나 학기별 수강가능학점 대비 졸업이수학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부의 경우 실제 3년 내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학생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.

❍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지 묻고,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평의원 전체의 동의 하에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을 원안대로 가결하다.

❍ 김은상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, 16:05에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제4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. 끝.

서용원	(인)	한상만	(인)	전재욱	<위임>
김윤배	(인)	김은상	(인)		
이철우	(인)	강두호	(인)		
허재강	(인)	조준범	(인)	박근아	<위임>
전미희	(인)	윤영선	(인)		